

朴憲永：人間，政治，思想

梁 性 喆

I. 머리말

II. 方法論上的 문제점

III. 人間

IV. 政治

V. 思想

I. 머 리 말

이 小考는 朴憲永의 人間，政治，思想에 관한 연구논문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연구조사를 위한 기초작업적 시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욕심 같아서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더 많은 一次자료와 관련 人士들의 인터뷰등을 통해 보다 깊이와 무게 있는 朴憲永像을 그려보고 싶었지만 여기서는 단편적으로나마 알려진 극소수의 자료에 준거해서 朴의 人生，政治，思想의 表皮의 서술에 그친 셈이다.

또 이 小考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政治환경과 여전속에서도 同學先輩들이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朴憲永관계의 史料편찬적 연구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과 앞으로 보다 體系的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朴憲永은 한국(조선)공산당사에서 큰자리와 몫을 차지한다. 朴의 人生，政治行路, 그리고 그의 극히 편린적인 思想과 政略은 크게는 조선 공산당

사의 斷面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한 人間으로서, 共產主義혁명가로서, 그리고 政治人으로서의 朴의 一生은 文字 그대로 刻苦의 點철이었다고 볼 수 있다. 人生의 成敗를 判가름한다는 그 自體가 恣意的인 것이지만 적어도 正統 조선공산당지도자로서의 그의 政治行路는 成功談이라기엔 失敗의 기록에 가깝고 바로 그것은 소위 正統 조선공산당의 失敗나 몰락과 直結된다.

이 小考에서는 먼저 박헌영 연구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몇가지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朴의 人間, 政治, 그리고 그의 政略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Ⅱ. 方法論上的 문제점

첫째로 傳記서술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傳記者가 대상인물의 一代記를 처음부터 계속 기록해 온 것이 아니고 傳記者가 一代記를 기록분석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人物의 一生을 [설명 傳記가 出生에서 死亡까지 順序있게 서술했다 하더라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원인을 따라서 결과를 보기 보다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접근방법론상의 제약이 있다.¹⁾

具體的으로 얘기하자면 박헌영이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줄곧 自叙傳을 썼을 수도 없었고, 또 朴의 傳記者도 그가 한국공산당사의 큰 자리와 몫을 차지할 人物임을 미리 알고 朴이 태어났을 때부터 끝까지 그 一生을 충실히 기록해온 것이 아니고 傳記者가 朴을 「건거적 인물」이라고 판단한 다음 그 一生을 그에 대해 이곳 저곳 흩어져 있는 자료 등을 통해 거슬러 되돌아 보는 「推理」가 朴의 傳記의 기본핵심이 된다.

1) Edwin Muir의 말을 빌리면 “自叙傳은 出生으로 시작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Norman Kiehl, *The Universal Experience of Adolescence*(Boston: Beacon Press, 1968), p. 12에서 引用.

둘째로 남북분단, 共產, 反共이라는 政治환경과 도식화된 이념적 여건이 가져다 주는 제약이다. 기본자료의 流通이나 實事求是에 입각한 언론출판 表現의 自由등에 제한과 제제를 받는다는 극히 원초적인 학문의 自由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세째로 여러가지 자료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朴憲永에 관한 자료가 극히 不足하고 제한되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制限된 자료자체도 그 신빙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된다. 日帝治下의 보도관제를 통과한 신문잡지의 단편적인 公判記事, 경찰서 情報綴, 조선총독부 朝保秘, 法院檢事局調書, 有關人士 인터뷰,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관계기사등의 客觀性, 신빙성의 문제가 있다. 調書자체나 사건기술 내용의 眞偽를 판가름하기가 힘들고 따라서 같은 사건, 같은 문제라도 調書진술자에 따라 날짜, 장소, 主要人物, 활동상황등에 차이가 나고 때로는 진술자가 의식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많다. 朴의 심복 金炯善이 1933년 7월 서울서 체포되어 그와 朴의 관계를 그의 豫審請求書에서 감추고 마치 金丹治와 金炯善의 國內黨再建운동인 것처럼 진술한 것이 좋은 보기다.²⁾

보기를 하나 더 들면 朴憲永을 쓴 박갑동에 의하면 소위 「괴소자 박헌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전복 음모와 반국가적 간첩테러 및 선전선동행위에 대한 사건」과 그가 北京에서 보았다는 발표되지 않은 「극비재판기록」은 너무나도 差異가 난다는 사실이다. 北韓이 발표한 上記 재판기록에 의하면 朴憲永이 재판장과 검사의 질문에 모든 죄상을 다 시인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박갑동이 보았다는 소위 「극비재판기록」에는 朴이 모든 죄목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그렇겠지」하고 대답했다는 것이다.³⁾ 보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특히 북한이 내놓은 公式기록, 자료, 출판물은 어디까지가 사실(facts)이고 어디까지가 허구(fiction)인가 하는 문제

2) 金俊摩·金昌順 共著, 「韓國共產主義運動史」(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76), 第5권, p.354 참조.

3) 박갑동저, 「박헌영 : 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서울, 인간선서, 1983), p.279.

가 있다.⁴⁾

네째로 차이 관계한 공산당조직 명칭들이 각기 달리 쓰이고 있어 혼동과 혼잡을 일으킬 수 있다. 보기를 들면 1939년부터 1941년에 存在했던 京城「콩그룹」이라는 명칭이다. 김준엽·김창순은 「콩그룹」이라고 表記하고 있으나 김남식은 「콤·클럽」이라고 일컫고 이정식, 스칼라피노와 서대숙은 「콤그룹」(The Communist Group)으로 表記하고 있다. 「콤」이나 「콩」은 美佛蘇등 어느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混同될 수 있으나 클럽과 「그룹」은 아마도 後者(Group)가 옳은 것 같기도 하다.⁵⁾ 김준엽·김창순이 지적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칭된 정치적 사건⁶⁾ 등도 이런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문제이겠다.

끝으로 한국(조선)공산당史 正邪論이다. 김준엽·김창순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이후의 공산당사 즉 金日成主導 이후의 공산당사는 「전통적 의미의 조선 공산당을 제승한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분리해서 취급해야 한다는 論旨다.⁷⁾ 이는 朴憲永은 진짜 또는 正統 조선공산주의자인 反面, 김일성은 가짜 또는 非正統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김준엽·김창순은 또 「조선 공산당 북조선분국 이후의 북한단독공산당시대 곧 북조선공산당시대부터는 조선 공산당의 全

4) 사실과 허구에 관한 방법론상의 북한 연구의 문제는 Sung Chul Yang, *Korea and Two Regimes*(Cambridge: Schenkman, 1981), pp. 335~337 참조.

5) 김준엽, 김창순은 京城콩그룹이 1939년에서 1941년에 걸쳐 存在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정식, 스칼라피노는 1937년에 出發했다고 쓰고 있다. 김남식, 서대숙도 조직의 出發을 朴憲永이 출감한 해인 1939년으로 보았다. 명칭 및 조직의 出發日字에 관한 詳細한 것은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5권 pp. 356~358;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201~202;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p. 192~193; 金南植 著, 「實錄南勞黨」(서울: 新現實社, 1975), pp. 4~5 박갑동도 경성콤·그루프라고 일컫고 있다. 박갑동, 앞의 책, p. 79.

6) 북조선분국이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칭되게 된 정치적 배경 및 이유의 상세한 설명은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5권, pp. 376~379 참조.

7)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5권, p. 375.

一性을 스스로 파괴하고,否認한 것이기 때문에 時代區分上 한국공산주의 운동사에서는 분리하였다」고 역설했다.⁸⁾

다시 말하면 김일성主導下의 공산당이 스스로 정통 조선 공산당사를 파괴 부정했으므로 前者와 後者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論旨에는 또한 북한이 내놓은 金日成傳記가 事實이나 史實과 相異할 뿐만 아니라 허구에 찬 것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金의 抗日계털라 경력에 그가 주장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만주계털라조직인 東北抗日聯軍 第一路軍 第二軍 第六師 소속이라는 사실이다.⁹⁾ 그러나 金이 東北抗日聯軍 소속이므로 正統性이 없다는 論旨에는 적어도 세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聯軍」이라는 술어 자체가 뜻하는 것이나 中國共產黨이 연군 조직을 위해 내놓은 소위 「8·1 宣言」에서 한국도 다른 피압박민족과 함께 抗日「聯軍」에 참여하라는 호소가 밝히고 있듯이 중국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聯軍은 당연히 抗日투쟁을 위한 중국공산당산하 연합군이지만 한편 聯軍에 참여한 他人種・民族軍 특히 日帝식민지강점下에 있는 韓人에게는 「연군」이라는 조직체제나 「抗日투쟁」이라는 과제가 「소속」이라는 형식에 앞설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겠다.

金日成부대가 중국공산당산하의 抗日연군소속이므로 正統조선공산주의 운동에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論理는 朴憲永에게도 같은 論理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즉 朴은 元來 Irkutsk 派에 속하며 Irkutsk 파는 西部시베리아 歸化人中心으로 1918年 1月 소련볼셰비키당 韓人支部였으며, 더구나 朴이 Comintern의 지시와 지령을 해방전에 받아왔고 해방후에도 그가 만든 再建 조선공산당까지도 宗主소련의 승인을 얻는 데서 正統性과 合法性을 찾았다는 것도 正統性・非正統性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이후의 소위 김일성支配下의 북한공

8) 앞의 책, p. 384.

9) 위의 책 pp. 51~83, Dae-Sook Suh, *op. cit.*, p. 253~293. Scalapino and Lee, *op. cit.*, pp. 202~230.

산주의를 「구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렇다고 後者를 한국공산주의 운동사에서 排除하는 것은 無理가 아닐까 한다. 즉 소위 정통한국공산주의 운동과 김일성과 한국공산주의가 어떻게 연결 또는 분리되고 이들 사이의 人的, 이념적, 제도적 등 차이가 무엇인가를 비교분석해야지 그냥 ‘분리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小見이다. 서대숙이 박헌영 등 소위 정통 한국공산주의자들을 舊(Old) 공산주의자로, 김일성등 소위 非정통과 공산주의자를 新(New) 공산주의자로 區分하는 것이나, Scalapino 와 이정식이 金日成을 한국공산주의 지도자들 중에서 특히 연안과 김원봉이나 무정에 比해서 그당시 實力이나 장차 차지할 공산당지도자로서 상대적으로 뒤졌다고 본 것이 非正統派 공산주의자들을 「가짜 또는 사이비」 한국공산주의자로 몰아버리는 것보다는 더 온당한 학문적 자세가 아닐다 싶다.¹⁰⁾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극도로 과장된 선전이나 虛構性을 파헤치는 것은 옳으나, 가짜든 진짜든 金이 소속한 조직이나 그가 主導한 정치가 낡은 歷史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論理가 되겠다.

위에서 지적한 박헌영연구의 방법론상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상기하면서 다음에는 그의 人間的 成長, 공산주의활동 그리고 정치행각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Ⅲ. 人 間

1. 少年期

朴憲永은 1900年 5月 1日,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333번지¹¹⁾

10) 김일성의 正體에 관한 여러가지 異論은 Sung Chul Yang, *op. cit.*, pp. 75~95; pp. 365~389.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5권, pp. 51~83. Scalapino and Lee, *op. cit.*, pp. 202~232. Dae-Sook Suh, *op. cit.*, pp. 256~293. 韓載德著 「김일성을 告發한다」(서울, 1965), p. 74. 李命英, 「북괴피수 김일성의 정체」(서울, 민족문화사, 1975), p. 125 등 참조.

11) 朴의 住所에 多少差異가 있다. 여기서는 박갑동, 앞의 책, p. 9에 의거함. 그

에서 태어났다.朴의 아버지는 寧海 朴氏 鉉主로 그의 윗형 鉉定과 함께 쌀장사를 해서 中流 정도의 生活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¹²⁾ 朴鉉主는 本妻로부터 난 아들 知永이 열살난 해인 1899년 집안에 딸이 없다는 핑계로 충남 서산出身의 小室을 얻어 이듬해 1900年 딸아닌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이가 한국공산당사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되는 憲永이다. 여기서 推理되는 것은 첫째로 朴憲永이 한국의 전통사회와 西歐・日本 등 새물결이 교차하는 20世紀의 그 첫언저리인 1900年에 出生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는 그가 농촌 中間商의 庶子出身이라는 한국전통사회에서는 차별과 천대를 받는 사회・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舊時代와 새時代, 전통적 가치질서와 새文化 가치체제, 舊學問과 新學問의 갈등과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幼年・少年期를 맞은 셈이다.

朴은 작은 키에 과묵한 편이고 얼굴이 땅땅한 모습으로 어렸을 때 별명은 「땅딸보」였다고 한다.¹³⁾ 朴의 어머니는 그곳 신양리 장터에서 술집을 차려 생활을 꾸려가면서 오직 하나뿐인 아들 憲永에게 남달리 사랑과 정성을 쏟았다고 한다. 憲永은 열살난해(1910年)부터 약 2년간 書堂을 다니며 漢文공부를 했다. 1912년 열두살난 해에 그의 마을 신양리에서 10km쯤 떨어진 대흥면에 日帝의 新교육제실시에 따라 대흥보통학교가 생기자 그는 2학년으로 입학하고 1915年 3月 23日 4년제 보통학교를 第1회로 졸업했다. 入學당시 학생수는 24명이고 그중 셋만이 신양面에서 왔고 나머지는 모두가 이웃 대흥면, 광시면 出身이고 졸업당시엔 紅一點이던 처녀 李容周와 唯一한 총각인 현영이를 빼놓곤 모두가 장가를 들었다고 한다. 오늘의 학령으로 따지자면 현영도 中學校가는 나이였지만 그 때 만해도 그의 나이가 제일 어린편이었다.¹⁴⁾

그러나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135의 註 218에서는 朴의 본적을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동 299번지로 기록하고 있다.

12) 박갑동, 앞의 책, p.10 그러나 김남식은 朴이 「地主양반집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김남식, 앞의 책, p.16 참조

13) 박갑동, 앞의 책, p.10.

14) 위의 책, pp.11~13.

보통학교시절에도朴은 말수가 적고 班에서 「막내」로 통했고, 운동이나 장난은 썩 즐기지는 않았으나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고집도 있었다고 한다.¹⁵⁾

대흥보통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1915年度 학적부에 의하면 朴의 성적은 上位로 입학년도인 2학년때의 성적은 修身 7점, 국어(日本語) 9점, 한문 및 조선어 10점, 산술 9점, 도화체조가 8점으로 총 24명 中 7등이었다.¹⁶⁾ 「朴憲永」의 著者인 박갑동은 현영과 대흥보통학교 그리고 京城高普(現경기고교)동창인 尹曠求씨의 증언을 引用, 少年시절에 있었던 현영의 「자전차사건」을 보기로 들었다. 당시 신양에서는 몇 대밖에 없는 자전거를 현영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것을 타며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일본 순사보조원 노릇을 하던 한국인이 그것을 빌어 타자고 하고 朴은 안된다고 하고 是非가 붙어 보조원이 朴의 뺨을 한대 갈겼다고 한다. 그러자 朴은 보조원에 달려들어 앞치락 뒗치락하다 朴의 어머니가 달려나와 가까스로 싸움을 말렸다고 한다. 박갑동은 이런 몇가지 少年시절의 에피소드를 빼놓곤 朴憲永이 「정말 특징없는 시골뜨기 소년이었다」고 보았다.¹⁷⁾

이 에피소드에서도 示唆하는 것은 憲永이 小室의 외아들로 그 어려운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놀 정도로 남달리 어머니의 귀여움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또 겉으로는 순한 성격이지만 악착스러운 內面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日帝라는 정치환경 속에서 庶子라는 舊時代 전통 가치가 주는 차별대우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알뜰한 사랑사이에서 朴이 같은 나이 또래의 애들에 비해 훨씬 큰 괴리를 느끼고 그 괴리가 그에게 더 큰 욕구불만과 좌절감을 안겨다준 것이라고 類推할 수 있겠다.

15) 위의 책.

16) 위의 책.

17) 위의 책, p. 12.

2. 高普時節

1915年 3月 24日 대흥보통학교를 졸업한 학생 가운데 1,2등을 한 張海鎭과 尹璣求是 무시험으로, 朴憲永和 姜藝植은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경성고보(現경기고교)에 입학했다. 1915年 朴은 入學지원생 1,320명 가운데 合格者 256명의 하나가 된 셈이다.

高普시절에도 朴은 말이 없고, 다른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었고 키도 체격도 보통이고 남달리 까무잡잡한 얼굴이어서 朴은 「기와장」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고 한다. 당시 학급주임부에 의하면 朴의 성질은 중순착실하고 행장은 中上, 용모, 복장, 언어는 보통이라고 기록되었다.¹⁸⁾ 朴의 學科성적은 中上정도였으나 英語성적은 우수했다. 3학년 때는 155명 중 58등, 졸업 때는 128명 중 42등, 과외활동으로는 YMCA 영어반에 들어 영어공부를 했고, 주일마다 淸風교회에서 영어공부를 하는 등 남달리 英語에 퓌 관심을 쏟은 것 같다. 朴이 2학년때 商科·農科中 영어를 일주일에 두시간씩 가르치는 商科를 擇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이겠다.

朴이 졸업을 23일 앞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 졸업식도 없이 경성고보 15회 졸업생이 되었다. 朴은 졸업후 5월부터는 약 5개월간 동창 崔基龍(당시 조선은행 入社)의 집에 묵으며 놀다가 그해 가을쯤 尹璣求 등과 같은 예산 出身 3,4명이 美國에 가기로 하고 여비는 비교적 생활여유가 있던 尹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갑자기 尹이 맹장염이 걸려 그 꿈이 깨지고 말았다.

여하튼 朴의 高普時節에서는 두 가지점이 주목된다. 하나는 그때가 밖으로는 1917年 11月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공산주의 혁명이 成功, 정치적·사상적 波高가 컸으며, 안으로는 日帝식민지 초기로 아직 조선인의 日帝에 대한 거부반응이 強했고 바로 그가 졸업하는 해에 抗日조선독립운동의 가장 큰 사건인 三·一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직접 간접으로,

18) 위의 책, p.18.

음으로 양으로, 그의 훗날 정치행자이나 思想에 큰 영향을 준 外的 여건인 것이겠다.

또 하나는 고보졸업 후 다른 친구들처럼 곧바로 취직을 하지 않고 몇달간 친구집에서 묵으면서 유학등 海外로 떠나 새길을 찾고자 하는 방황하고 망설이는 모습이다. 더구나 그가 남달리 英語에 열중했고 졸업 후에는 미국으로 가겠다는 집념으로 나타났으나 그 꿈이 막바지에 깨지고 말았다는 것은 朴의 人生, 그리고 그가 뒷날 겪어야하는 政治行路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朴이 가고싶어 했던 美國유학의 꿈이 깨지지 않고 「上海」行이 아닌 美國 땅에 그 첫발을 디뎠다면 그의 政治 또는 사상에도 큰 變化와 轉機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北韓이 내놓은 朴의 公式裁判 기록에는 事實如否는 고사하고라도 朴이 「1919년경 서울에서 잡지 「녀자시론」의 편집인으로 있을 때부터 동잡지를 주관하는 친미분자 차미리사와 기독교 선교사로서 연희전문학교 교원(후에 교장)으로 있던 언더우드와의 친교를 통하여 숭미사상(崇美思想)을 품게 되었다」¹⁹⁾해서 朴이 졸업후 놀지 않고 「女子時論」이라는 잡지사에 근무한 것같이 기록하고 있으나 그 사실여부는 필자가 아직 캐보지 못했다. 아뭏든 高普를 마치고 일년 남짓 머물다가 故國을 떠나 美國아닌 上海에 그 첫발을 디게 된다.

3. 上海時節

언제 어느 때 朴이 좌익사상에 눈이 뜨고 물이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다.²⁰⁾ 그러나 위에서도 시사했듯이 朴의 高普시절에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그 새물결이 日帝의 탄압속에 시달리는 한반도에도 특히 당시 지식층을 통해 쉽게 스며든 것은 짐작할 수 있다. 美國行 꿈이 무산되고 나서 朴

19) 「피소자 박헌영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전복 음모와 반국가적 간첩 배로 및 선전 선동행위에 대한 사건」(발췌), 김남식, 앞의 책, p. 633 참조.

20) 서대숙은 朴동철은 靑年들이 安秉謙과 金萬謙이 만든 사회주의연구소를 통해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 보았다. Dae-Sook Suh, *op. cit.*, pp. 47~48 참조.

이 스무살되던 해인 1920년 9월 日本을 거쳐 곧바로 中國 上海에 도착했다. 그가 어디서 여비를 얻어 누구를 찾아 무엇을 하러 日本을 거쳐 中國 上海에 갔는가는 뚜렷이 알 수가 없다. 그가 上海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기독교 청년회 부설 강습소에 들어가 영어공부를 계속하면서 박갑동에 의하면 서울선린상고출신이고 2년간 日本경응대학을 다니다온 林元根을 알게 된다(그뒤 林과 박은 둘도 없는 공산당동지가 된다).²¹⁾ 朴憲永外 10人調書에 의하면 박은 위 강습소를 다니면서 反李東輝派 러시아韓人 金萬謙·安秉讚이 Irkutsk 派 한인공산당의 支援으로 上海에 만든 세칭 Irkutsk 파 고려공산당 상해支部의 사회주의 연구소(사실은 共靑의 二重간판)에 入所했다. 呂運亨調書에 의하면 안병찬의 제의와 김만경, 여운형의 즉각호응으로 Irkutsk 파 고려공산당 上海支部가 조직됐고, 박은 이 支部의 실권자인 김만경의 접촉으로 이 支部가 결성된 1921年 7月 同黨에 入黨했다. 김준엽·김창순은 박이 黨입당과 때를 같이하여 조직된 上海고려공산당 청년동맹의 責任비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²²⁾

또 그해(1921년) 4월부터는 上海商科大學에 入學 1922年 3月까지 수업했다는 기록이²³⁾ 있으나 박이 1921年 늦가을 共靑책임비서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第一次 극동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上海를 떠났기 때문에 시간상 서로 엇갈린다.²⁴⁾

박의 上海시절은 비록 3년이 채못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人生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가 되었다. 첫째로 그는 이곳에서 그 人生을 송두리채 바치게 되는 共產黨에 加入했다.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두 母體 즉

21) 박갑동, 앞의 책, pp. 23~25.

22)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1권, p. 257. 註 198 참조.

23) 위의 책, 2권, p. 135. 朴憲永外 10人調書에 준거한 것임. 註 218 참조.

24) 同大會는 1922년 1月 모스크바에서 開會하여 2月 2일 레닌그라드(당시는 페트로그라드)에서 폐막됨. 김창순·김준엽, 앞의 책, 1권 pp. 385~389. 박갑동, 앞의 책, p. 27. Dae-Sook Suh, 앞의 책, pp. 34~40. Scalapino and Lee, 앞의 책, pp. 37~46 참조. 당시 한국대표단은 23개 단체에서 뽑힌 52명으로 이 숫자는 同大會 대표총수 144명의 1/3를 훨씬 넘는 수였다.

1918年 1月 Irkutsk에서 조직된 西部시베리아의 귀화인 한인中心으로 金哲勲 등을 代表로 하는 볼셰비키黨 한인支部와 東部시베리아의 非귀화와 한인을 중심으로 1918년 6월에 조직된 李東輝가 代表하는 Khavarovsk의 한인사회당— 그中 朴은 前者의 上海支部의 소속됨으로서 소위 Irkutsk파 공산당 골수분자가 되었다.²⁵⁾ 李東輝파가 단순한 「反日독립의 투사일뿐 볼셰비즘의 원칙에 충실한 공산주의자라고는 할 수 없다」면 朴이 속한 Irkutsk파는 볼셰비즘에 재빨리 同化될 수 있는 自體조건을 갖춘 人物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주목해야할 사실이다.²⁶⁾

둘째로 이곳에서 사귀 친구요 공산당동지인 林元根의 애인 許貞淑의 소개로 함흥 出身으로 피아노를 공부하는 女性운동가 朱世竹을 알게 되고 朴과 朱는 그뒤 국내에서 결혼(결혼 날짜와 장소는 未詳), 짧으면서도 파란 많은 人生의 반려자가 된다.²⁷⁾ 上海에서 朴은 또 朱世竹 外에도 한국망명객의 딸인 玄엘리스란 女人도 알게 되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朴과 玄의 관계는 훗날 金日成의 朴의 숙청에서 「美帝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는데 한 몫을 하게 되었다.²⁸⁾

4. 共靑, 投獄, 潛行地下運動期

朴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한 사실은 의문이었으나 그의 入蘇, 出蘇나 行先地, 활동상황 등에는 학자간에 多少 차이가 있다. 김준엽·김창순은 朴憲永 外 10人調書를 引用, 1921年 4월부터 上海商科大學에 朴이 入學하여 “1922年 3월까지 修業하다가 同年 4月 김만경으로부터 약간의 자금을 얻어 가지고 入國途中 신의주對岸 만주안동현

25)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1권 p. 388 Dae-Sook Suh, *op. cit.*, p. 22N Scalapino and Lee, *op. cit.*, p. 380.

26)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1권 pp. 374~375.

27) 朱世竹은 나이 설혼살로 모스크바에서 홀로 살다 쓸쓸히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명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고 1929년 6월 朴과 모스크바에 도착, 같이 살다 朴이 1932년 1월 24일 모스크바에서 上海로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고 사망한 것 같다. 박갑동, 앞의 책, pp. 74~75.

28) 위의 책, pp. 25~26.

중국음식점 「영빈루」에서 체포되어 신의주지방법원, 평양복심법원에서 1921年 6월의 징역을 언도받고 복역하다가 1924年 1月 18日 출옥하여 同年 4月 동아일보 기자로入社했다”고 했다.²⁹⁾ 이에 反해 박갑동은朴이 1921年 가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극동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차 上海를 떠나 Irkutsk에 도착, 2주일가량 머물다 12월 중순 전용열차편으로 모스크바에 28일만에 도착했고 大會는 1922年 2月 21日 개막, 3월 2일 레닌그라드에서 폐막되었다고 기록했다.³⁰⁾朴과 金丹治, 林元根은 1922年 3月初 다시 Irkutsk에서 上海에 되돌아와 Irkutsk 공산당 上海支部책임비서 김만점으로 부터 300여원을 받고 그해 3월 25일 上海를 떠나 安東行 北海丸을 타고 5일만에 3월 30일 용암포에 닿아 김만점의 연락객인 治隆洋行이란 상점주인 崔浚을 접촉, 4월 1일 안동현에 이르러 영빈관에서 하루밤을 묵고, 崔의 심복인 中國人을 시켜 신의주—경성 기차표 3장을 사도록 하고 朴등 셋은 가까운 의주군 백마역까지 장사일 보러가는 것처럼 꾸몄다. 서울까지 간다면 안동이나 신의주역 검문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었다. 朴의 一行은 백마역까지 닿는데 성공, 백마역에서 서울까지 가는 표를 갖고 신의주에서부터 탄 것처럼 했으나 몇 정거장을 지나 철산군참면 차편관에서 미행한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됐다.³¹⁾

1924년 1월 19일 평양형무소에서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만기출옥한 朴, 林元根, 金丹治는 서울로 잠입, 1924년 2월 11일 前土曜會중심인물—金燦, 朴一秉, 閔泰興 등—23명에 의해 결성된 신흥청년동맹에 加入했다.³²⁾ Comintern에서 밀파한 金在鳳, 辛鐵 등이 신흥청년동맹에 깊숙

29)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 135.

30) Scalapino and Lee, *op. cit.*, p. 38.

31) Dae-Sook Suh, *op. cit.*, p. 62N. Scalapino의 Lee의 책에 기록된 1921年 4월 안동역에서의 체포는 1922년의 잘못된 것 같다. Scalapino and Lee, *op. cit.*, p. 53.

32) 1920年代 국내 좌익 청년활동의 二大主流은 서울靑年會系와 북성회系였다. 서울靑年會系는 조선노동대회, 조선노동공제회, 민중사, 신생활사 등을 포용했고 그들 주요인물은 金思國, 李英, 鄭栢, 崔昌益, 李廷允, 金榮萬, 車今奉, 韓愼教, 張彩樞, 張日煥 등이고 北星會系는 부산자동맹, 조선노동연맹회, 토

히 간여, 국내공산주의 전위로 등장했다. 신흥청년회가 결성된 12일 뒤인 2월 23일朴과 洪命熹, 金燦 등은 서울 종로 중앙회관에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종로서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不許, 그뒤 3월 11일부터朴은 김찬·신철과 함께 청주, 공주, 대구, 광주 등 28개 도시에서 순회강연을 했다. 당시朴에 대한 평가는 박갑동에 의하면「겉으로는 차분한 듯 하면서도 꼼처럼 끈질긴」강인성을 가졌고, 그의 웅변은「굵직하고 선동적인 편은 못되었으나 설명적이면서 진지한 편」이고 목소리는「카랑카랑했으며, 키가 작은 그가 열변을 토할 때는 야무진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³³⁾

朴은 그해 4월 15일 동아일보사에 一說에 의하면 許憲의 추천으로 入社했다.³⁴⁾ 한편 同年 4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조선청년총동맹 창립대회가 37,15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총 223개 단체 대표 170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리고朴은 韓愼敎, 崔順鐸, 강재모, 주종진 등과 함께 5人 중앙검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³⁵⁾

朴이 속하는 신흥청년동맹은 1924년 8월 11일 신흥청년사를 설립하고 기관지로「신흥청년」을 발간지로 하고朴은 金丹治, 임원근, 김찬, 홍증식, 민태홍, 민규호와 함께 상무위원으로 활약했다.

朴은 동아일보사에 入社한지 半年도 못넘기고 1924년 9월께 火曜會系 洪璿植의 추천으로 조선일보사로 일 자리를 옮겼다. 당시 조선일보사에는朴과 함께 좌익계 인물로 金丹治, 林元根, 조봉암, 홍남표, 김준연, 辛日鎔 등이 있었다. 조선일보사入社 一年쯤인 1925년 9월 8일 서울靑年會系는 설위원인 辛日鎔이 쓴「조선과 러시아의 정치적 관계」라는 글로 일제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일보가 무기정간 되고朴도 失職했다.

요회, 진사상연구회(뒤에 수요회)를 산하에 두었고 그 주요인물로는 申伯雨, 尹德炳, 金若水, 閔泰興, 金燦, 曹奉岩, 崔在達, 辛鐵 등이었다. 당시 청년운동단체계보 및 활동상황은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 148, pp. 135~149. 박갑동, 앞의 책, pp. 35~41. Scalapino and Lee, *op. cit.*, pp. 3~65. Dae-Sook Suh, *op. cit.*, pp. 55~114 . . .

33) 박갑동, 앞의 책, pp. 40~41.

34) 위의 책, p. 42.

35) 위의 책, pp. 42~43;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p. 141~144.

한편 1925年 2月 16日³⁶⁾朴은 그가 속했던 화요회系 중심으로 조직된 조조선 민중운동자대회(회의 4월 20일 개최)의 72명 준비위원의 한사람으로 동아/조선일보에 발표됐다. 이 조조선 민중운동자대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4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열린 조선기자대회는 둘다 조선공산당을 결성하려는 프르부로 국내부의 프락치 工作과 같은 관련이 있었고³⁷⁾ 조선공산당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의 注目을 兩大會에 쏠리게 하는 「방패막이」였다고 볼 수 있다.³⁸⁾

이 두 大會가 열리는 동안 1925年 4月 17일 1시부터 4시 사이에 서울시 황금町 一丁目 중국음식점 「아서원」 2층에서 극비리에 조선공산당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이 결성대회에 朴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說³⁹⁾과 참가했다는 說⁴⁰⁾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창당참가자가 20명 內外였다는 사실이다.

當時 조선일보 지방부기자인 朴憲永은 조선공산당창당 바로 그 다음날인 4월 18일 그의집 蕪井洞 4番地에서 朴과 林元根, 金丹治, 조봉암, 홍증식, 김찬, 임형관, 김원주, 염창렬, 장수산 등 約 20名內外가 모여 비밀결사 「고려공산청년회」를 결성하고 朴은 7人 중앙집행위원겸 책임비서로 등장했다.⁴¹⁾

여기서 하나 밝혀야 할 사실은 1923年 6月, 화요회·북풍회 간부들이 서울 경운동 김찬집에 모여 비밀결사 프르부로 國內部를 조직, 黨과 共靑을 二分, 당책임비서에 김재봉, 共靑책임비서에 辛鐵을 선임했으며 1924年 3월 辛이 사보타주를 이유로 除名당하고 朴, 조봉암, 임원근, 金丹治

36) 박갑동은 2월 16일자로, 김준엽·김창순은 2월 19일자로 되었으나 2월 16일자의 誤植임.

37)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 261.

38) 박갑동, 앞의 책, p. 49.

39) 「金在鳳外 19人調書」 p. 1077,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 286서 引用.

40) 「金燦調書」 p. 44. 김준엽·김창순, 2권 위의 책, p. 281서 引用.

41) 當時 共靑任員들의 調書진술에는 그들의 共靑에서 의역할에 多少 차이가 있으나 朴이 책임비서 格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에 대한 詳細한 조사는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p. 315~318. 李起夏, 한국정당발달사(서울: 의회정치사, 1961), p. 21. Scalapino and Lee, *op. cit.*, p. 59.

를 간부로 보설했다는 것이 金燦(金洛俊)의 예심종결서 主文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선공산당 창당으로 朴이 正式으로 共靑책임비서로 등장하기 전 벌써 共靑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上海에서도 朴이 Irkutsk 과 고려공청의 책임비서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⁴²⁾

아름다운 朴은 1921年 上海에서부터 25세 나이로 1925년 4월 共靑책임비서로 부상할 때까지 꾸준히 共靑핵심멤버로 활약해 온 것이다. 同年 5월엔 국제共靑의 승인을 얻기 위해 조봉암을 모스크바로 보내 서울出發, 上海경유, 6월에 모스크바에 도착, 고려공청회원들의 모스크바 유학허가도 받아냈다.⁴³⁾ 이에 따라 21명을 共靑집행위원이 엄선, 모스크바로 파견했다.⁴⁴⁾

朴은 Comintern 으로부터 보내온 동양赤化운동자금의 一部 1,850원을 당시 上海제계중인 조봉암으로부터 권오직이 받아 임행관에 인계, 임행관으로부터 朴이 받아서 위의 고려공청 모스크바유학생 유학비로 충당, 1925년 10월 10일부터 11월초까지 유학보냈다.⁴⁵⁾ 이밖에도 朴은 만주 Harbin 에 있는 朴光秀로부터 국제공산청년회 동양여자비서부에서 받은 女子운동비 조로 150원 수령했다. 朴이 이끈 고려공청은 그뒤 1926년 4월 Comintern 으로부터 正式승인을 받았다.⁴⁶⁾

1925년 11월 22일 발단한 世稱신의주사건 때까지 고려공청은 全國的으로 各郡에 군청년동맹, 各道에는 道靑年동맹을 조직하고 그 기반아래 조선청년 총동맹을 가졌다. 朴은 또 공산주의 교양과 훈련을 실시하여 당원

42)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p.208~210 참조. pp.203~205도 참조. 박갑동에 의하면 共靑조직당시 朴이 「조선일보 지방부기자」였다고 했는데 「朴憲永外 10人調書」에는 朴이 「동아일보기자」로 기록되어 있다.

前者가 옳은 것 같음. 박갑동, 앞의 책, p.43, 김창순·김준엽, 앞의 책, 2권, p.313서 引用.

43) 조봉암이 上海에서 1925년 8월 중순경 유학생을 보내라는 편지를 서울에 보냈다고 한다. 詳細한 것은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321. Scalapino and Lee, *op. cit.*, pp.59~61.

44) 21명 名單은 박갑동, 앞의 책, p.57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322.

45)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323. 박갑동, 앞의 책, p.57.

46) 위의 책, p.324.

으로서 정치적·사상적 준비를 가지게 하는 共靑학교 설치를 계획했으나, 실현하지는 못했다. 또 고려공청은 당시 左傾誌 조선之光과 停刊中인 신홍청년동맹의 同人誌 「신홍청년」을 買收하여 기관지로 운영하려 했으나 資金難으로 실현하지 못했다.⁴⁷⁾

신의주사건⁴⁸⁾을 발단으로 차이 上海 조봉암에게 보내려던 「비밀문서」 등의 발작으로 조선內에서의 공산주의 조직의 윤곽이 들어나고 따라서 日帝 기관의 검거로 조선공산당·고려공청은 피멸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차과 그의妻 朱世竹은 이로인해 11월 30일 새벽 종로서에 연행됐다. 차과 그의妻, 林元根, 兪鎮熙, 朴吉陽, 金尙珠 등은 12월 3일 기차편으로(홍증식은 10일 체포돼서 뒤늦게) 신의주로 연행되고 12월 12일 차은 경찰의 취조를 마치고 신의주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차과 함께 홍증식, 임원근 등 10명이 신의주 형무소에 수감되고 그 외에도 共靑會員 66명이 체포되고 그중 56명이 검찰국에 송치되었고, 37명이 手配되어 共靑 및 화요회조직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됐다.⁴⁹⁾

1926년 6월 소위 6·10 만세사건으로 강달영이 再建한 第二次 공산당사건과 신의주사건과의 연관이 들춰지자 그 해 7월 22일 朴憲永은 신의주에서 서울로 호송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한편 朱世竹은 풀려나와 남편 수감중 공산당 야세포(細胞)로 계속 활동했다. 또 차의 수감으로 權五高이 1925년 12월 20일 上海에서 金丹治가 마련해 보내온 2,000원을 갖고 共靑조직 책임비서로 활동을 계속했다.⁵⁰⁾

차이 1927년 9월 13일 공판에서 狂人행세를 했으며, 박갑동에 의하면 狂人행세는 차이 감방을 빠져 나가려고 일부러 염살을 부린 것이라고 보았다. 서대숙은 강달영과 박현영은 미쳤다고 보도하고 있고, 김창순·김준

47) 위의 책, pp. 327~328. Scalapino and Lee, *op. cit.*, pp. 59~60.

48)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p. 412~46; 李起夏, 앞의 책, pp. 25~27 참조.

49) 김찬, 김동명, 金丹治, 최원택 등은 海外도피에 成功했다.

50)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pp. 412~416.

엽도朴이 “失真”했다고 했고, 당시 목격자인 柳光烈은朴이 「미친척」한 것 같다고 보았다.⁵¹⁾ 1927年 11월 중순에는朴의 發狂이 극도에 달아 「대변을 보고는 손에 쥐어 벽에 바르고 간수가 밥을 갖다주면 밥은 그대로 두고 변을 먹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때문에 병보석을 11월 15일 신청, 7일 뒤인 1927年 11월 22일 허가를 받았다.

朴은 곧 서대문 동의 金鐸遠병원에 入院했다가 不治의 병을 치료한다는 구실로 여행증을 얻어 1928年 妻 朱世竹과 함께 함경남도 安邊의 釋寺에 머무르다가 그해 여름 朱의 고향 함흥을 거쳐 11월 중순 韓滿國경을 넘어 만주 탈출에 성공했다. 「서대문은朴이 1929年 8월 만주간도를 거쳐 Vladivostok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⁵²⁾ 1929년 초여름 Vladivostok 노동자 해련휴양소에서 元老공산당의 한사람인 金綴洙가朴을 몇차례 만났는데 金의 증언에 비하면朴은 「배운것도 있는 편이고 집념이 강한듯 해서 저 친구야말로 Irkutsk과의 두목이었던 金哲勳과 함께 지독한 공산주의 자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했다.⁵³⁾

朴은 병보석으로 풀려나와 國外로 탈출에 成功했으나 김재봉 등 조선공산당사건으로 잡혀들어간 101명 중 85명이 최고 6년 8개월에서 8개월의 유죄선고를 받았다.朴이 병보석으로 이 言渡에서 除外된 것은 훗날 金日成이朴을 日帝의 앞잡이로 동지를 배반하고 당조직을 폭로해서 그만큼 厚한 대접을 받고 重刑을免했다는 「죄」까지 뒤집어쓰게 됐다.⁵⁴⁾

Vladivostok에 머물면서朴은 그의 건강이 회복되자 朱世竹과 함께 1929

51) 박갑동, 앞의 책, p. 73; Dae-Sook Suh, *op. cit.*, p. 112, p. 191.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5권, p. 348. 유광렬의 증언은 김준엽·김창순, 5권 p. 350에서 引用.

52) 박갑동, 앞의 책, pp. 73~74. Dae-Sook Suh, *op. cit.*, p. 191. 李起夏는 1928年 12월 7일 발표된 Comintern의 「조선문제 12월 테제」로 국내의 한인 공산당조직을 해산시킴과 즈음하여 그 다음해 1929년에朴이 金丹治와 함께 朝共 再追 준비위원회를 조직, 地下혁명활동을 계속했다고 적고 있으나 1929년엔朴이 그의 妻 朱世竹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공산당 修學中이었음. 李起夏, 앞의 책, p. 51 참조.

53) 박갑동, 앞의 책, pp. 73~74서 引用

54) 박갑동, 앞의 책, p. 74.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p. 350~362.

년 6월 모스크바에 도착, 그곳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 入學, 2년간 공부를 했다고 박갑동은 기록하고 있다. 김준엽·김창순은 5월 中旬에 모스크바에 가서 Marx 學院에 入學했다가 학업의 진도가 여의치 않아 同學院을 퇴학하고 Vladivostok 에 돌아와서 조선인 국민학교의 교사노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서대숙은 박이 Vladivostok 의 한인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가 건강이 회복하자 1933년 1월 上海에 와서 金丹治를 만났다고 보도했다.⁵⁵⁾ 김준엽·김창순은 金正奎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박이 1932년 말이나 1933년 初에 上海에 갔다고 보았으나 박갑동은 1932년 1월 24일 上記 모스크바 공산대학 교무주임 ‘로베스트’로부터 받은 여비 60원을 갖고 上海의 金丹治를 만나라는 지령을 받고 아내 朱世竹을 모스크바에 남겨둔 채 上海에 가서 프랑스租界에 있는 金과 접촉했다.⁵⁶⁾

上海에 도착한 朴憲永은 金丹治와 함께 우선 국내출판물을 보내 국내노동자 농민을 교양훈련시키고 2단계로 직접운동을 펴기로 방침을 세우고 上海의 金炯善을 工作員으로 1933년 2월 國內로 보내 국내 工作線 李載裕와 연결시켰다. 박은 Communist(박갑동의 Community 는 잘못임)라는 기관지를 만들어 국내에 배부하다가 꼬리가 잡혀 33년 7월 中旬 金炯善이 노량진에서 잡히고 박도 上海의 日警(日本 총영사관소속)에 붙잡혀 경기도 경찰부로 압송되고 8월 16일(1925년 5월 7일 시행된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혐의로) 검사국에 송치됐다.⁵⁷⁾

55) 박갑동, 앞의 책, p. 75 ;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5권, pp. 350~351, Dae Sook Suh, *op. cit.*, pp. 191~192.

56) 박갑동, 앞의 책, p. 75. 박의 「로베스트」는 「로베스트」의 誤記임.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5권, p. 351 참조.

57) 박갑동, 앞의 책, pp. 76~77, 김준엽·김창순에 의하면 김형선이 영등포에서 잡혔고 김형선의 入國일자도 1931년 2월 下旬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박현영이 모스크바에서 1932年末내지 1933年初에 上海로갔다고 했으므로 날짜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준엽·김창순에 의하면 김형선이 1931년 2월 下旬 仁川에 入國, 다시 1932년 5월 下旬 上海에 되돌아갔다가 同年 8월 下旬 다시금 入國했다고 하므로서 서로 통신비밀 연락을 한 것 같이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박갑동의 기록이 틀린 것 같음. 詳細한 것은,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5권, pp. 349~354 참조.

1933年 8월 26일 朴은 경성지법 제2예심제에서 김형선과 함께 유죄로 판정되어 34년 1월 21일, 신의주사건(1925, 11월 22일)으로 도주한 죄까지 加重되어 7년 구형 징역 6년 언도(未決通算 550日)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리하여 1939년 만기출옥 때까지 오랜 감옥생활을 하게 됐다.

朴은 1922년의 1년 6개월, 1925년 11월에서 1927년 병보석으로 나올 때까지 만 2년과 1934년에서 1939까지 6년 등 20代, 30代의 절반인 거의 10年 동안을 日帝下에서 감옥생활을 한 것이다. 靑靑의 지도인물로서 朴은 그의 젊음과 정력을 감옥과 地下活動으로 20代, 30代를 불살라 버린 셈이다. 이 기간은 또 朴을 철두철미한 공산주의 골수분자로 단련시켰으며, 非타협·非전향의 人間으로 만든 것이다. 같은 형무소에 있던 金綴洙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감방구멍을 통해 朴에게 「刑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나 아무리 長期刑이라도 젊은이는 살아나가야지 하니 전향서를 쓰고 나가 활동을 하라」고 하자 朴은 「金선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소」하며 버럭 화를 냈다고 한다.⁵⁸⁾

朴은 刑期를 마치고 39년 고향 예산에 돌아와 다시 정신병자행세를 하다가 7월 집을 몰래 떠나 서울에 와서 金三龍과 접촉, 1939年 李觀述, 李順今, 張順明, 권오직, 李鉉相 등이 공산당 再建을 위해 조직한 경성콤그룹에 들어가 그 책임자로 추대됐으나 잇단 일경의 검거로 42年 12월쯤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명맥이 끊기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朴은 다시 남선전기주식회사 광주지점에 근무하며 조직책으로 활동하던 尹道亨의 협조로 金成三이란 가명을 갖고 광주시 백운동 215번지에 있던 연와공장의 人夫로 일하면서 地下조직망을 계속 이끌어다가다가 3년째 되는 해에 8·15 해방을 맞았다.⁵⁹⁾

成人이 된 人間 박헌영에 대한 인간평가는 극히 단편적인 것 뿐이다.

58) 박갑동, 앞의 책, pp.77~78.

59) 위의 책, p.83. Dae-Sook Suh, *op. cit.*, p.193.

Scalapino 와 Lee 는 박헌영이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인정받은 조선공산주의 지도자였으나 그가 靑年을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를 소유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⁶⁰⁾ 실록 南勞黨의 著者 김남식은 朴 개인의 「制限性」을 강조한다. 즉 朴은 「忠南禮山의 地主兩班집 出身으로, 출신성분상 小부르 좌적인 사상에서 탈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보고 따라서 20年代 공산주의운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 노동자, 농민 속에 파고들어가 그들 안에다 당조직을 부식하지 못했고, 또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朴은 공산주의 이론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구비할 수 없었고, 「게다가 性格과 性品도 포용력이 적고 독선적인 면이 있어 유연성 있는 전략가로서는 부적합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合法黨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8·15 이후 합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새환경에 「대담하고 전격력 있는 지도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제한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⁶¹⁾ 또 김남식은 朴의 「편협한 종파성」을 강조했다.⁶²⁾ 김준엽·김창순은 朴과 소위 경성콤그룹 멤버들을 「최후까지 非轉向의 사상적 지조를 견지한 동지들만으로 結合된 점」을 강조했다. 또 金·金은 朴의 「확고하고도 치밀한」 해방후 黨再建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⁶³⁾ 박헌영 전기의 著者 박갑동은 그가 朴헌영을 가까이 접촉할 때까지는 「공산투쟁밖에 모르는 편협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를 막상 처음 만나서 본 인상은 「표범과 같이 단단하고 민첩한 사람」으로 보였다고 했다. 그뒤 좀 잘 안 뒤에는 朴이 「폭넓고 상식이 풍부하며, 일반에게 알려진 것 같이 그렇게 괴팍스런 인간은 아닌 것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朴은 「풍모에서 풍기는 단단하고 차가운 인상이 대중정치가로서의 결정적인 마이너스가 된 것을 자신도 알고 있는 듯했다」고 보고 朴의 말은 「대학교수의 강의와 같이 담담하며 직선적이었다」

60) Scalapino and Lee, *op. cit.*, p. 267.

61) 김남식, 앞의 책, pp. 16~17.

62) 위의 책, p. 337.

63)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5권, p. 356, p. 358.

고 묘사했다. 또朴의「쏘는 듯한 안광과 단단한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확고하고 꾸밈이 없는 것」같고 呂運亨의 말보다는朴의 말에는「실천이 따르는 것 같았다」고 했다. 박갑동 역시 박헌영의「원칙성」「비타협성」을 시인하고 그러한 性向은 바로朴의 피나는 투쟁에서 기인한 고집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朴은「투사」,「투쟁적 인간」이라고 결론지었다.⁶⁴⁾ 또朴이 철저한 공산주의 골수분자이지만 같은 충정도 출신인 金三龍·鄭泰植과朴이 갖고 있는「동향적 우정」의 모습도 보이는 人間의 측면도 엿보인다.⁶⁵⁾ 1946年 美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에 당시 駐韓 美大使館 정치담당 Langdon이 美國務長官에 보낸 電信(1946, 8월 2일)에 의하면 朴憲永을 철저한 反美主義者로 명하고 그의「완고성」을 강조했다.⁶⁶⁾ 따라서朴을 金日成이 美帝스파이로 몰아 처형한 사실은朴의 一生의 마지막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眞僞는 알 수 없지만 박갑동에 의하면 박헌영이 死刑현장에서「역사의 날조자, 혁명의 찬탈자, 민족의 반역자, 인민의 원수 金日成을 타도하라」고 외치며 죽었다고 한다.⁶⁷⁾

요컨대 朴의 一代記는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공산당史의 시련과 拷問의 行路를 그대로 반영하는 한 眞面目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人間性을 묘사하는 편협성, 종파성, 제한성, 원칙성 등도 바로 그가 겪고 결어온 日帝下, 美軍政下, 金日成下에서의 파란많은 탄압과 시련의 產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뭏든 그는 거의 도식화된 철저한 공산주의자였고, 바로 그러한「원칙성」이 그를 몰락시킨 한 原因이 되었다. 金日成이「小스탈린」이라면朴은 바로「小트로츠키」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다.⁶⁸⁾

64) 박갑동, 앞의 책, p. 118~120, p. 163.

65) 위의 책, p. 247.

6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 Far East, Vol. VIII, p. 722, p. 768.

67) 박갑동, 앞의 책, p. 279.

68) Sung Chul Yang, *op. cit.*, pp. 167~171, pp. 360~362. 참조.

IV. 政 治

朴의 한 인간으로서의 「失敗」는 그의 政治人으로서의, 한국공산주의 지도자로서의, 「失敗」와 직결된다. 해방후 朴의 共產黨再建에서부터 南勞黨의 出現 및 勞動黨內에서의 朴동 소위 南勞黨系의 몰락과정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지금까지 되어있으므로⁶⁹⁾ 여기서는 朴과 소위 國內파 패배의 原因 규명에만 초점을 두고 간략히 분석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박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1945년 9월 8일 長安派 열성분자 大會에서 黨再建과 黨中央건설에 대한 사실상 全權을 한손에 쥐고 9월 11일엔 黨再建대회 형식을 밟지 않고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그것을 母體로 「조선공산당」을 내놓았다. 이는 1929년 12월 Comintern의 조선공산당 해체지시(12월 테제)에 따라 조선공산당이 괴멸되지만 만 16년만에, 그가 공산당창당 당시 청년당원으로서, 고려공청책임비서로 부상한지 꼭 20년만에, 통일재건조선공산당의 사실상 당수로 再부상했다. 곧 바로 10월 13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西北 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大會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설치를 결의하고 그 책임비서에 金鎔範이 뽑혔다. 同年 12월 17日, 18日 第3次 확대집행위원회를 열고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金日成을 책임비서로 다시 선출했고, 이는 形式上 金日成이 朴의 지도하에 적어도 1946년 1월 29일까지는 있었던 셈이지만 金日成의 등장은 朴이 金에게 黨주도권을 빼앗기는 그 첫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보다 앞서 朴이 모스크바 三相會談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

69) 김남순, 앞의 책 : Scalapino and Lee, *op. cit.*, Chong-Sik Lee, *The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박일원, 「남노당총비판」(서울: 극동정보사, 1948), 박일원, 「남로당의 조직과 전술」(서울: 세계, 1984); 김종범·김동운 공저, 「해방전후의 조선진상」(서울: 돌베개, 1983); 장복성, 「조선공산당파쟁사」(서울: 돌베개, 1983); 김창순, 「북한 15년사」(서울: 지문자, 1961); 이명영, 「권력의 역사: 조선로동당과 근대사」(서울: 성균관 대학교출판부, 1983); 김준엽, 김창순, 앞의 책, 5.

에 처음엔 反託을 표명하다가(45년 12월 30일) 그가 평양에 가서 찬탁 지령을 받고 46년 1월 1일 서울로 되돌아와 찬탁으로 표변한데서도 朴의 政治的 몰락의 序章을 엿볼 수 있겠다.⁷⁰⁾

朴은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수립과 함께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內閣의 3人부수상의 하나로, 그리고 外相으로, 1949年(6월 30일부터 7월 1일)의 남로당, 북로당 合併으로 조선로동당 창립에서도 그는 形式上 두 부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뽑혔으나, 朴의 공산주의 지도자로서의 정치生命은 1946年 9월 5일 영구차속 검은 관속에 누어 시체로 가장, 서울을 탈출해서 월북하는데서 끝장이 난 셈이다.⁷¹⁾ 朴이 1953년 8월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次 확대회의때까지 形式上 公式地位를 지탱하고 있었으나, 그리고 그가 1955년 12월 15일 美帝스파이, 反國家 행위罪目으로 처형될 때까지 生命은 살아 남아 있었으나, 그의 정치生命은 그의 월북을 起點으로 산송장이 벌써 되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가 ‘영구차’로 죽은 사람처럼 꾸며간 것이 아니라, 그는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죽은 송장’으로 월북한 것이었다.

그러면 朴은 왜 공산당지도자로서 등장하지 못하고 김일성의 바람 속에서 그만 밀려나고 말았는가? 朴의 政治的 失敗의 原因은 무엇인가?

朴의 失敗의 원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복합적인 것이다.

우선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朴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결함이다. 오랜 地下生活 감옥생활에서 오는 피해의식, 고집, 원칙론, 非타협성, 순수성 등은 하루 하루 급변하는 해방직후의 국내, 국제 정치상황에 쉽게 적응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유연성과 민감성의 결핍을 낳고, 이는 당시 外勢(南의

70) 한제덕·박갑동은 박헌영이 평양에서 찬탁지령을 받고 1946년 1월 1일 서울에 돌아왔다고 주장하나 서대숙은 朴이 평양에 가서 지령을 받고 돌아왔다는 물적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한제덕, 앞의 책, p. 135; 박갑동, 앞의 책, p. 136; Dae-Sook Suh, *op. cit.*, p. 306. Scalapino와 Lee는 朴이 급히 비밀리에 평양에 갔다가 1월 2일 서울에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Scalapino and Lee, *op. cit.*, p. 277.

71) 박갑동, 앞의 책, pp. 166~168.

美國이나 北의 소련)에 민첩히 결탁하는 세력들에 밀리는 꼴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朴의 개인적인 결함 즉 지도자로서의 力량의 不足에서 보다도, 1945년에서 1948년 2개의 政府가 한반도에 들어서는 해방 3년의 격동기의 객관적인 여건이 朴과 그를 둘러싼 소위 정통조선공산당세력의 정치적 부상에 不利했다는 사실이다. 즉 치명적인 것은 그가 再建한 조선공산당의 본부가 美軍政下의 서울에 자리를 했다는 것은 그 出生, 出發부터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대숙이 시사했듯이 만약 조선공산당의 중앙당이 서울이 아니고 소련점령下의 평양에 있었다라면 朴中心의 정통공산당이 黨의 행정기구를 장악할 수 있었고, 이 행정기구를 통해 김일성의 등장을 견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假定도⁷²⁾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납득할 수 있다.

박갑동은 「박헌영이 金日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가지고 있는 것 단하나, 그것은 군사와 경찰의 힘」이었다고 했으나⁷³⁾ 이것은 극히 表皮의인 比較이며, 그 밑바닥에는 朴이 共產黨員으로서, 共青지도자로서, 그의 투쟁경력을 쌓아온 것에 反해 金은 抗日유격대 師長으로서 實戰 전투경력을 연마했다는 즉 前者의 「黨人」으로서의, 그리고 後者の 「武人」으로서의 경력의 대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겠다. 더구나 朴이 外勢를 벗어난 통일조국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데 比해 金은 미소의 존재에 민감히 대처, 소련의 비호를 업고 통일조국보다는 권력장악에 더 힘을 쏟았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사실은 朴의 권력기반이 남반부에 있고, 적어도 1946년 9월 6일부터는 美軍政下에서 共產主義활동이 다시 不法化, 철저한 검거와 통제속에 地下운동으로 퇴각한 反面, 金을 中軸으로 한 북로당은 소련점령군의 비호아래 계속 成長勢를 거듭했다는 사실이다. 즉 朴은

72) Dae-Sook Suh, *op. cit.*, p. 71.

73) 박갑동, 앞의책, pp. 209~210.

월북과 함께 조직없는 남로당의 당수로서 김일성의 「영구식객」으로 전락한 것이다.⁷⁴⁾

이밖에도 政策과 路線의 측면에서朴의 이승만의 독립촉성총협의회(45년 10월 23일 결성)의 참여와 탈퇴(11월 16일), 反託에서 찬탁으로의 표변, 9월 총파업(1946), 10월 영남폭동(1946), 남로당의 「5倍加운동」, 國大案반대와 3·1 사건, 2·7 폭동(1948년 2월 7일), 제주도폭동(1948년 4월 3일), 여순반란사건(48년 10월) 등 朴이 直接 간접으로 지시, 지도, 간여한 해방 3년동안의 사건속에서도 그의 몰락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겠다.

서대숙은 또 해방전 朴을 中心으로 한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공산주의자나 Comintern 과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또 소위 서울靑年會系와 火曜會·경성콤그룹系 등 黨內 분파·종파 행위등을 들고 특히 朴은 美蘇라는 外勢의 결정적인 정치적 의미를 터득하지 못한 채 그가 월북할 때까지 美軍政의 Hodge 장군과 계속 현안을 모색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둔감한 점을 들고 있다.⁷⁵⁾

Scalapino 와 Lee 도 같은 조건이라면 해방직후 남한이 북한보다는 공산주의 국가의 生成에 有利한 것이었으나 南韓이 소련군이 아닌 美軍의 占領과 정치下에 있었다는 사실이 南韓에서의 공산주의 失敗의 그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⁷⁶⁾ 이렇게 보면 朴이 再建공산당의 중앙당을 평양 아닌 서울에 둔 것도 바로 그런 여건에서였다고 볼 수 있고, 또 바로 그런 여건 때문에 서울서 出發한 朴의 再建공산당은 또 몰락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74) 위의 책, p.176.

75) Dae-Sook Suh, *op. cit.*, pp.311~320.

76) Scalapino and Lee, *op. cit.*, pp.311~312.

V. 思 想

박헌영의 「사상」을 얘기하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박의 독립적이고 創意的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론정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고작해야 극히 편린적인 그의 정치적 식견, 전략 등이다. 더구나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몇개의 단편적인 자료 자체들도 다 存在하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사상」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몇가지 초점을 잡아야 할 것 같다. 첫째로 언제 왜 누구를 통해서 박은 공산주의 사상에 눈이 뜨고 젖어 들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둘째는 그의 사상을 극히 편린적이거나 엿볼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기준이나 근거로 ① 박이 참여한 단체나 조직들의 성격과 활동, ② 박이 쓴 「서한」, 「보고서」, 「연설문」 「테제」, 「調書」에 나타난 陳述, 論文 등 ③ 박의 공식견해, 전략 등 대충 세가지로 나눠 살펴보기로 하고 편의상 박의 사상을 해방전과 해방후로 區分해 보았다.

세째는 실령 박의 「테제」, 陳述, 공식견해나 전략등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가 黨이나 Comintern의 지령에 의한 것이고 박헌영 本人의 것이냐 하는 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1. 日帝下

우선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박이 공산주의 사상에 눈이 뜨였는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그가 17살난 해에 러시아 볼셰비키혁명이 성공했고, 그는 당시 고보학생으로 그런 뉴스를 접했을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朴憲永外 10人調書」에 의하면 박이 1920年 9월 일본 東京을 거쳐 中國 上海에 도착, 곧장 「사회주의 연구소」(共靑의 위장간판)에 入所하고 또 Irkutsk 파 고려공산당 상해支部에 入黨함과 동시에 고려공산당 청년동맹

책임비서가 됐다는 사실은 그가 서울을 떠나기 전부터 사회주의이론에 심취되고 또 사회주의자들과 접촉내지는 交分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서대숙은 차이 상해의 안병찬의 연구소(사회주의연구소)에서 공산주의이론에 세뇌됐다고 보았다.⁷⁷⁾

아 물론 그는 조선공산당 兩大支流의 하나인 Irkutsk 파로 公式 데뷰한 것이다.

다음으로 日帝下에서 차이 참여한 조직, 단체, 大會들을 대충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모스크바「극동 인민대표자회의」참석(1922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 火曜會에서 핵심멤버로 활동(1923년 7월 7일 발기한 신사상연구회가 1924년 11월 개칭됨)
- 신흥청년동맹핵심 멤버로 활동(1924년 2월 11일 결성)
- 조선청년총동맹준비위원(1924년 2월 11일)
- 신흥청년사 주요 인물로 활동(1924년 8월)
- 全 조선 민중운동자대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1925년 2월 19일)
- 조선공산당조직에 참여(1925년 4월 17일)
- 고려공산청년회결성으로 그 책임비서로 활동(1925년 4월 18일)
- 京城콤그룹의 지도자로 활동(1939년)

위에서 열거한 차이 主要인물로 참여한 이들 조직들의 강령, 정책, 목표 등에서 살펴보자면 차이가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이나 전략을 「전개」했다기 보다는 당시 유행한 일반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전달」하는 정도라는 것이 옳겠다.

그와 관련된 조직, 단체, 大會들의 一次的인 과제는 일제로부터 비타협적이고 혁명적인 민족운동을 통해 「조선민중해방운동」을 달성하며 궁극적으로는 계급투쟁을 통한 민중 즉, 노동本位의 새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77) Dae-Sook Suh, *op. cit.*, p. 71.

고작이었다.⁷⁸⁾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박이 조선공산당 제보에서 Irkutsk 파에 속했다는 사실이다.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Irkutsk 파는 1918年 1월 金哲勲 등 Irkutsk 에서 Bolsheviki 黨의 韓人支部로 조직된 것으로 西部시베리아 歸化韓人집단인 反面, 소위 같은 해 6 月에 李東輝에 의해 조직된 한인사회당은 극동시베리아의 非歸化 한인중심조직이었다. 따라서 出發부터 Irkutsk 파는 Bolsheviki 공산혁명이라는 一次的 목표를 가진 소련공산당지방조직(支部)이고 後者は 反日독립투쟁을 그 一次的 목적으로 하는 韓人의 自體 조직이었다. 따라서 Irkutsk 당은 대부분 비교적 공산주의이론에 흡입된 者들이 中心이 된 反面, 李東輝파는 대부분 적어도 공산주의이론과 실천에 관한한 無原則하고 무자격한 「反日독립 투사」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⁷⁹⁾

요컨대 Irkutsk 파에겐 反日투쟁이 공산주의 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과도적 과제이었고, 逆으로 李東輝파에겐 공산주의 이론의 수용이 조국광복을 위한 잠정적인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자면 Irkutsk 파의 박은 第一次의으로 공산주의자였고 또 Comintern 의 지원과 지령하에서 출몰 움직인 Comintern 의 下手人的 역할이 고작이었다고 봐야겠다.

다음으로 박의 논지, 보고서, 진술등으로는

① 박이 잠시나마 근무한 「女子시론」,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記事나 논고등

② 박갑동에 의하면 차헌영이 「전봉준과 동학란연구가」이며, 이에 대한 진 논문을 썼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박은 동학란의 실패원인으로 우리나라 땅이 좁아서 반란군이 후방과 퇴로가 없는 나라이므로 中國과 같이 地廣物博한 나라와는 달리 短時直擊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의 思想이라기 보

78)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8章, 9章, 10章, 11章 참조.

79) 위의 책, 1권, pp. 374~375; 5권 p. 380.

다는 一種의 策略이겠다.⁸⁰⁾

③ 1925年 11월 신의주에서 압수된 조선공산당 비밀문서중에는 上海의 조봉암에게 보내는 비밀문서[C.E.C.Y.C.L: Centr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Young Communist League]가 있고 그 속에 차이 쓴 보고가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박헌영이 陳述에서 「서울靑年會系 즉 金思國一派의 者들이 따로 공산당을 조직하고 第3인터내셔널에 교섭하기 위하여 김영만, 박태선을 Vladivostok에 파견하였다는 풍문을 듣고 쓴 것」이라는 것으로 봐서 당시 國內에서 소위 서울靑年회계와 차이 속했던 화요회파의 파벌싸움 및 주도권 경쟁의 一面을 보여주는 共靑內의 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헌영이 上海에 있는 여운형에게 보낸 편지도 같은 類라고 볼 수 있다.⁸¹⁾

④ 1925年 12월 4일 「朴憲永外 10人調書」에서 박은 「공산靑年회는 비밀리에 조직한 것으로 그 주의 강령은 현재의 자본제도 즉 私有財産제도를 부인하고 現在에 있어서의 노농露西亞的 단체를 조직하려는 데 있다. 환언하면 역사적 사회진화의 법칙에 의하여 자본주의제도 즉 개인주의 경제조직은 그 內在하는 모순과 결함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이에 대체하여 사회주의적 경제조직 즉 萬人의 생활을 사회에서 보장하는 경제제도가 생겨나기로 되어 있다」고 했다. 同年 12月 27일 박은 同調書에 의하면 거의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우리는 자본주의제도를 어떤 폭력으로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사정이 자연히 변천하여가는 사실을 발견하여 會員에게 이것을 교양하려는 것이다」라고 진술했다.⁸²⁾ 이 진술에서도 차이 철저하게 도식적인 공산주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고려共靑책임비서로서 國內靑년조직활동을 위한 역할의 一面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폭력」을 그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는 면이 주목되나 박의 새로운 전략이라기엔 너무나도 단편적인 것이다.⁸³⁾

80) 박갑동, 앞의 책, p. 213.

81)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 309, p. 359; Suh, *op. cit.*, p. 75.

82)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2권 pp. 318~319 참조.

⑤ 朴憲永이金丹治 등과 함께 「Communist」란 선전물을 上海에서 만들어 金炯善을 1931년 2월 下旬 國內로 잠입시켜 配布했다고 하는데 이 잡지도 Comintern의 소위 「조선문제 12월테제」(1928년 12월 7일)라는 것에 입각해서 黨再建임무의 일환으로 1932년 8월 마르크스학원 교육주임 로베스트의 지령과 공작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기서 朴의 독창적인 「사상」을 찾아보기란 힘들다.⁸⁴⁾

요컨대 1945년 以前の 朴의 「思想」이란 기초적인 공산주의 이론의 도식적인 인식에 불과했고, 그의 모든 사상활동도 Comintern의 지시, 지령, 자금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독창성이나 새로운 次元의 이론전개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金南植이 지적한 바와 같이 「地下활동을 해야만 했던 악조건 때문이었겠지만, 朴은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했고」 또 「공산주의 이론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구비할 수 없었다」고 봐야겠다.⁸⁵⁾

2. 1945년以後

8·15 이후의 박헌영의 사상적 또는 전략적이론의 편린으로는 ① 소위 朴의 「8월테제」를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가 보충, 수정해서 내놓은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로 1945년 9월 20일 黨의 「정치로선에 대한 결정」으로 正式으로 채택한 것이 가장 돋보이는 朴의 作品이다. 朴의 테제는 長安파가 내놓은 소위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자의 긴급임무」가 주장했던 조선에서의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혁명을 동시에 수

83) 同調書에서 朴은 또 「공산청년회의 표면운동으로는 各部에 郡靑年연맹의 조직을 끝낸후에 道靑年연맹을 조직하는데 있는것인데 이를 청년동맹을 조직하는 이유는 各地에 있는 靑年으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지니게 하기 위하여 통일하는 것으로 장래 各地에서 선발 러시아에 보낸 학생들의 귀국과 더불어 양면에서 이것의 선전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 진보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것 역시 「思想」이타기엔 너무나도 단편적인 활동계획 비슷한 것일 뿐이다.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p.324 참조.

84)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5권 pp.351~352; 박갑동, 앞의 책, p.76.

85) 김남식, 앞의 책, p.16.

행하자는 「二重同時혁명론」에 맞선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을 거쳐 단계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 骨字로 하고 있다. 그러나 金南植이 지적했듯이 朴의 테제는 1905年 레닌의 저서 「두가지 전술」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 이론을 아무런 수정없이 교조적으로 「조선」에 원용한 것에 불과하고 또 그의 테제는 政權문제에 관한 뚜렷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⁸⁶⁾ 그러나 朴이 해방전후를 통해 내놓은 상대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것이 그의 8월 테제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⁸⁷⁾ ② 1945년 9월 25일 해방일보에 실린 朴헌영의 당통일과 중앙건설에 관한 보고에서도 그는 左派세력의 행동통일을 강조하고 「통일민족전선」의 결성을 앞에 내세우고 있으나 「과거의 파벌두명이나 운동을 휴식한分子는 아무리 명성이 높다해도 이번 中央에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당은 새로 再建될 것이다.」라고 註를 달음으로써 그의 배타성, 비타협성, 원칙성의 一面을 보여주고 있다.⁸⁸⁾ ③ 朴憲永을 대표하는 「統一再建조선공산당」 선언요지에서도 「長安파」를 「과거의 합법주의자」로 몰아 공격하고 한국에 있어서 역사발전의 현단계를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단계로 지적하고 있다.⁸⁹⁾ ④ 이밖에도 朴이 월북한 뒤 서울의 당에 보냈다는 소위 「박헌영선생의 서한」⁹⁰⁾이 있었고 박갑동에 의하면 서한에 「원칙」이 많았고, 그러나 실제적인 정책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요시한 것도 있다고 하나 그 서한 자체를 직접 필자가 一讀할 기회가 없어 판단키 어려우나 이것 역시 남한內 공산당 활동의 조직 및 행동지침에 관한 단편적인 것들이겠다. ⑤ 1946년 7월 26일 朴이 내놓은 「신전

86) 위의 책, pp. 31~34, 朴의 8월 테제 全文은 同書 pp. 617~631 참조.

87) 朴의 8월 테제에 관한 再評價는 金學準, “해방 3년의 시기에 있어서의 남북한 좌파지도자들의 공산주의관” 동아연구(第7집, 1986), pp. 71~78.

88) 金준엽·김창순, 앞의 책, 5권, pp. 364~366서 引用.

89) 조선 공산당 원로의 한 사람인 金顯洙는 金준엽·김창순과의 1967年 5월 15, 16일 인터뷰에서 朴의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단계 路線이 옳고 장안파의 同時혁명론선이 오류였다고 봤다. 金준엽·김창순, 앞의 책 5권, pp. 370~371.

90) 박갑동, 앞의 책, p. 175.

술에 대한 지시서」가 주목되며 박일원에 의하면 8개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이 「신전술」은 남한에 있어서 「비합법적 파파운동의 지침이었으며」 박헌영이 10월 폭동사건의 최고 책임자임을 물증한다고 봤다.⁹¹⁾ ⑥ 1950년 4월초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의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한 3件」의 보고서에서 「현단계에 있어서는 무력통일이 단 하나의 옳은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정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적극적으로 이 방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망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박헌영은 內面으로는 그러한 金日成노선을 지지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朴이 「김일성의 거수기가 되어서 김일성이 하자는 데로 무조건 찬성하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만 신세였음을 박갑동이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박헌영이 남북통일에 관한 남로당 지하당 방안을 작성하여 3월 27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金三龍에의 지시가 있었고 이 보고서에서는 「무력통일 不可論」을 주요 골자로 했으나 그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金三龍이 체포되어 그 보고서가 朴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⁹²⁾

이외에도 박헌영의 사상적 전략적 편린들로는 찬탁·반탁에 관한 表明, NYT 사건, 9월 총파업 등이나 그를 死刑의 場으로 끌고간 소위 「괴소자 박헌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전복음모와 반국가적 간첩테러 및 선전 선동행위에 대한 사건」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⁹³⁾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朴의 사상이란 극히 도식적인 공산주의 이론의 습득이었으며, 공산주의 일반이론에 어떤 一家見을 내세운 것도 또 조선 현실에 적용한 새로운 이론을 체계화한 것도 別無한 셈이다. 그에게 있어서 비교적 체계화·구체화된 이론전개는 그의 소위 「8月테제」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론에 있어서의 독창성의 결여, 실천과정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결함을 안고 있다.

박헌영은 한 人間으로서서는 시련과 각고의 人生이었고 黨人으로서도 패

91) 박일원, 앞의 책, pp. 30~32.

92) 박갑동, 앞의 책, pp. 256~257.

93) 위의 책, pp. 133~141 참조

배와 곤육의 접철이었고, 또 공산주의 사상가로서도 뾰족하게 내세울만한 持論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相對的으로 얘기하면 수많은 정통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그나마 朴이 내놓은 「8月테제」에 버금하는 이론·전략도 不在하다는 점에서 朴을 조선공산당사의 사상적 측면에서 결코 무시·배제할 수도 없다고 볼 수 있다.